

海運港灣廳 관할

2種港 '88年開發 계획

송 주 민〈港灣廳開發局企劃課〉



■ 서언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발맞추어 국가발전의 기간산업인 항만시설로 꾸준한 확충과 기존시설의 개량을 추진하여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화물의 수송에 원활을 기하고 공공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어항시설은 갈수록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며, 어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어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어항시설의 개념이라 하면 대형화물선의 입출항에 따라 해상화물을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상항 또는 공업항을

떠올리게 되지만, 본고에서는 규모면이나 이용면에서 볼 때 크고 작은 우리나라 전 연안에 걸쳐 산재하고 있는 어항에 대한 현황과 해운항만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항만관련 항만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어항의 현황

항만의 분류

어업의 전진기지 또는 근거지가 되는 어항은 어항법에 의하면 86년말 현재 1941개의 어항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분류해보면, 어항법에 의해 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1종어항 37개항, 2종어항 325개항, 3종어항 24개항

이 있으며, 어항법으로 지정되지 는 않았지만 어촌의 단위지역에 서 자연조건과 어민의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각 지역어촌에서 이용하고 있는 1,555 개의 소규모항 즉, 항·포구로 분류 할수가 있고, 이들 각종항만에 대한 개발 또는 관리의 주체를 보면 1·3종어항은 수산청에서, 2종어항과 소규모항은 (항·포구) 은 시·도지사가 직접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는 달리 주로 상항을 구분 하는 어항법에 의하면 1종항과 2종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1종항과 2종항의 전설은 해운항만청에서 주관 시행하고, 維持관리는 1종항은 해운항만청에서, 2종항은 시·도지사에게 관리를 위임하고 있다.

항만시설 현황

어민소득증대와 도서민의 생필품 수송등 도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운항만청에서 개발하여 시·도지사에게 維持관리를 위임하고 있는 2종항만 22개항에 대한 '87년말 현재의 어항시설 규모를 살펴보면, 암벽 1,067m, 물양장 13,528m, 방파제 15,269m로 각항별 시설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각항의 특성 및 개발계획

해운항만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2종지정항만 22개항 중 몇 개 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남항

'87 말 현재						
항 별	암 벽 (M)	물 양 장 (M)	방 파 제 (M)	하역능력 (천톤)	비 고	
연 평 도	—	—	1,014	—		
광 천	—	152	—	30		
대 천	—	130	300	52		
비 인	—	—	245	—		
대후산도	—	1,124	1,260	315		
거 문 도	—	818	1,434	136		
나 로 도	—	513	250	103		
성 산 포	—	556	1,567	118		
한 림	—	263	2,190	53		
화 순	82	72	549	94		
구 조 라	—	—	201	—		
부 산 남	—	3,766	528	912		
감 포	—	721	445	151		
구 룡 포	348	598	840	398		
월 포	—	20	157	4		
강 구	—	861	350	172		
후 포	197	577	1,982	312		
죽 변	105	762	708	236		
도 동	80	133	150	90		
임 원	80	443	433	241		
주 문 진	105	1,009	838	286		
거 진	70	1,010	728	265		

우리나라 최대항인 부산항에 인접한 본항은 자연항으로 주위 지형은 남동부가 외해에 노출된 것 이외에는 산 또는 섬으로 둘러싸여 잘 보호되어 있으며, 선박의 안전정박을 도모해 줄 수 있는 방파제로 인하여 파도로부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양항으로 본항의 개발기본방향은 연근해어선을 위한 어항위주의 항만시설 정비 및 확충, 취급되는 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화물 전용부두시설의 확보운영과 이를 위하여 원양어선의 항내체류를 금지시키고 타지역으로의 이전, 또한 항내정온을 위하여 외곽시설의 연장과 보강이 되겠으며, '89

년부터 '97년까지 시행예정인 부산남항의 개발에는 총 293억 2천 4백만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150m를 연장축조하고 기존방파제 394m를 보강하며 선박이 자유로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 2,560m 및 인근 해안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497m의 호안을 축조하게되면 본항은 어업기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을 것이다.

강구항

본항의 세력권인 영덕군의 서쪽은 태백산맥의 능선으로 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하천은 다소 급류상태

이나 비교적 장대하여 주운에 편리한 항구로 총22억7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88년부터 '91년까지 시행될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외곽 시설의 확충으로 항내정온 유지로 어선의 완전정박은 물론 항내로 유입하는 표사를 방지할 수 있으며, 물양장을 확충함으로써 장래 어선의 증가에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고 어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림항

본항은 제주도 북안의 서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항으로 수면적이 186,000㎡인 매우 협소한 항구로서 동지나해에 출어하는 연근해 어선의 출어기지 및 피난항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제주도 북서부 지역의 산화물을 전용처리할 수 있도록 '86년부터 '91년 까지 총사업비 116억4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외곽시설 230m 암벽 565m를 축조하게 되면 위에서 말한 출어기지와 피난항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인근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큰몫을 차지할 것이다.

성산포항

한림항과는 정반대의 제주도 동부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항으로 의해에서 진입하는 파도의 영향을 적게 받는 등의 자연적인 조건은 상당히 좋은편이나 항내수심이 얕고 대부분이 간출암으로 이용 가능한 수면적은 156,000㎡밖에 되지 않으며, 총사업비 146억5천7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산포항 개발이 완료되는 '90년에는 외



해의 파도를 막아주는 외곽시설 879m와 소형선박의 접안에 원활한 암벽 215m가 축조완료되고, 항내준설을 실시하여 제주동북부 지역의 연안산화물의 전용처리와 피난항 원양어업 전진기지항으로의 면모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연평도항

본항은 인천에서 59해리정도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 서해를 어장으로 하는 어업기지항이며 항내수면적은 600,000㎡이며 간만의 차는 최대 8m정도가 되는 항으로서 '85년부터 총사업비 74억백만원을 투입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평도항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91년에는 265m의 물양장과 총781m의 방파제가 축조 또는 보강이 완료되어 서해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을 위한 어항위주의 어항시설 확충과 도서민의 생활편의 증진도모를 할 수 있는 각 특성별 항구 및 소형어선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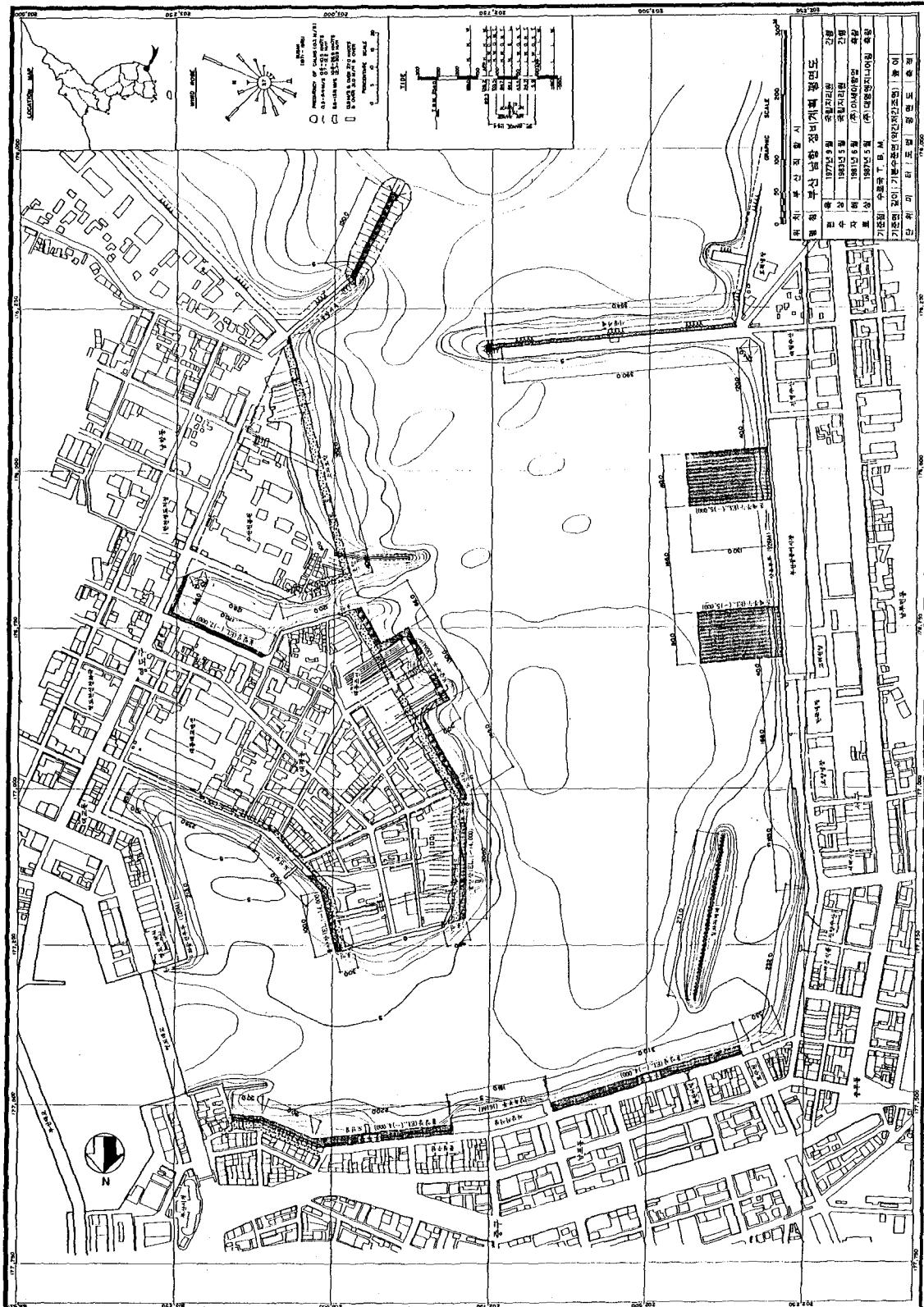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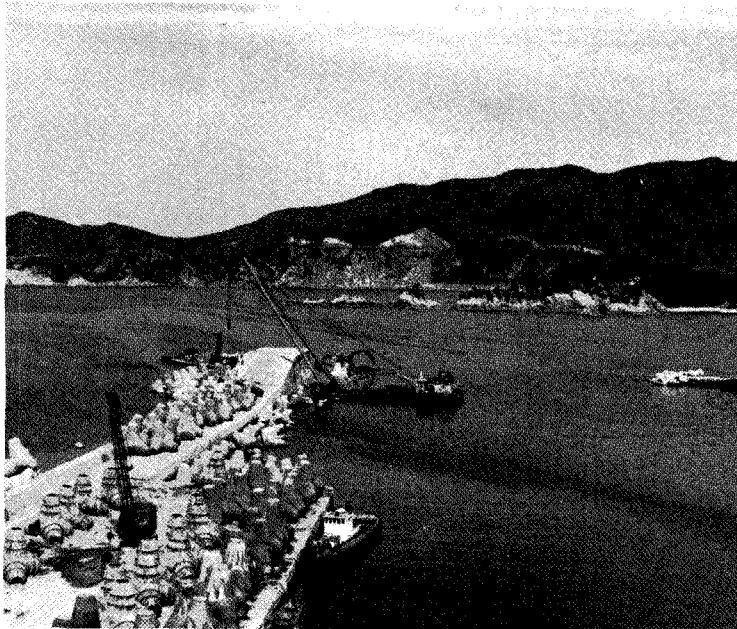
대흑산도항

본항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위치한 어업전진기지항이며 자연적으로 항내정온을 유지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천연의 양항으로서 총사업비 102억9천7백만원을 투입계획으로 '80년부터 방파제 570m 물양장 470m를 포함한 대흑산도항 건설이 완료되는 '90년에는 서남해안의 명실상부한 어업전진기지항으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부응을 할 수 있고 성어기 본항의 근해에서 조업하는 외래어선들이 횡천시 긴급대피할 수 있는 대피항으로서도 그 기능을 가일층 발휘할 수 있으며, 어민소득증대와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구룡포항

본항은 크기는 우리나라 2대





경제권의 하나인 부산경제대권에 속하고 있으며 작게는 우리나라 제1의 제철기지인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소권에 소속되어 있는 항으로 어업전진기지 항뿐 아니고 일반항으로도 활용가치가 대단히 높은 항이다. '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룡포항이 완료되는 '91년도에는 남방파제 343m와 안벽 1,018m가 건설되어 황천시 어선은 물론 화물선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 할 수 있는 정온수역을 확보하게 되고, 어선의 대형화에 맞는 어업 전진기지와 포항항의 대체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어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천항

본항은 우리나라 중서부해안에 위치한 항으로 이용선박은 주로 본항에 재적된 어선과 충남일원의 어선과 근접도서를 연결하는

여객선과 행정선 등이 이용하고 있으나 항만시설이 미약하여 이 용선박에 비해 시설이 매우 영세한 편으로 '88년부터 '97년까지 본항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총 148억 8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900m 물양장 748m 등 다수의 접안시설을 확보하여 대천항에 입항하는 모든 대소 선박의 안전정박과 대피가 가능하게 되며, 접결된 어선의 어획물 양육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출어선박의 급빙·급수를 위한 보급부두와 출어준비 및 선원의 휴식을 위한 시설 건설로 어업전진기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도서민의 편의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거문도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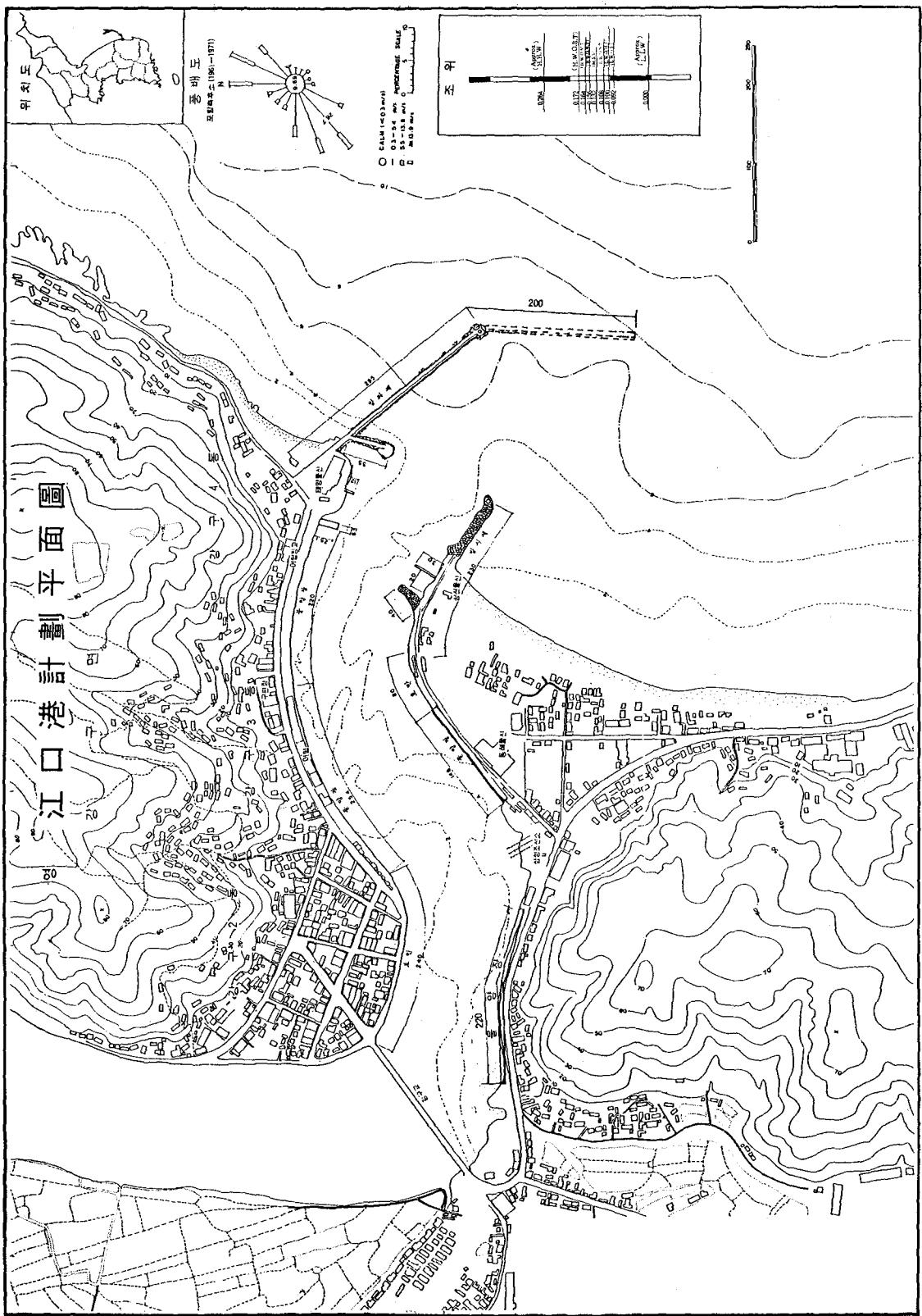
거문도항은 고흥반도 남단에 위치한 어업접진기지 항으로 성어 기에는 수백척의 어선이 모이는 중요한 항만이며, 또한 거문도가

남서해안의 육지부와 원거리에 있으며, 태풍시 영향권에 속한 경우에는 인근해역을 통과하는 화물선·여객선과 조업중인 어선이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매우 양호한 자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항으로서 '8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문도 피난항 건설이 완료되는 '91년도에는 방파제 1,100m가 완료되고 330m의 안벽이 축조되며 이에 따라 피난선박 또는 성어기 입항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약 400만t의 정온수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어민소득 증대 기여 및 관광자원으로도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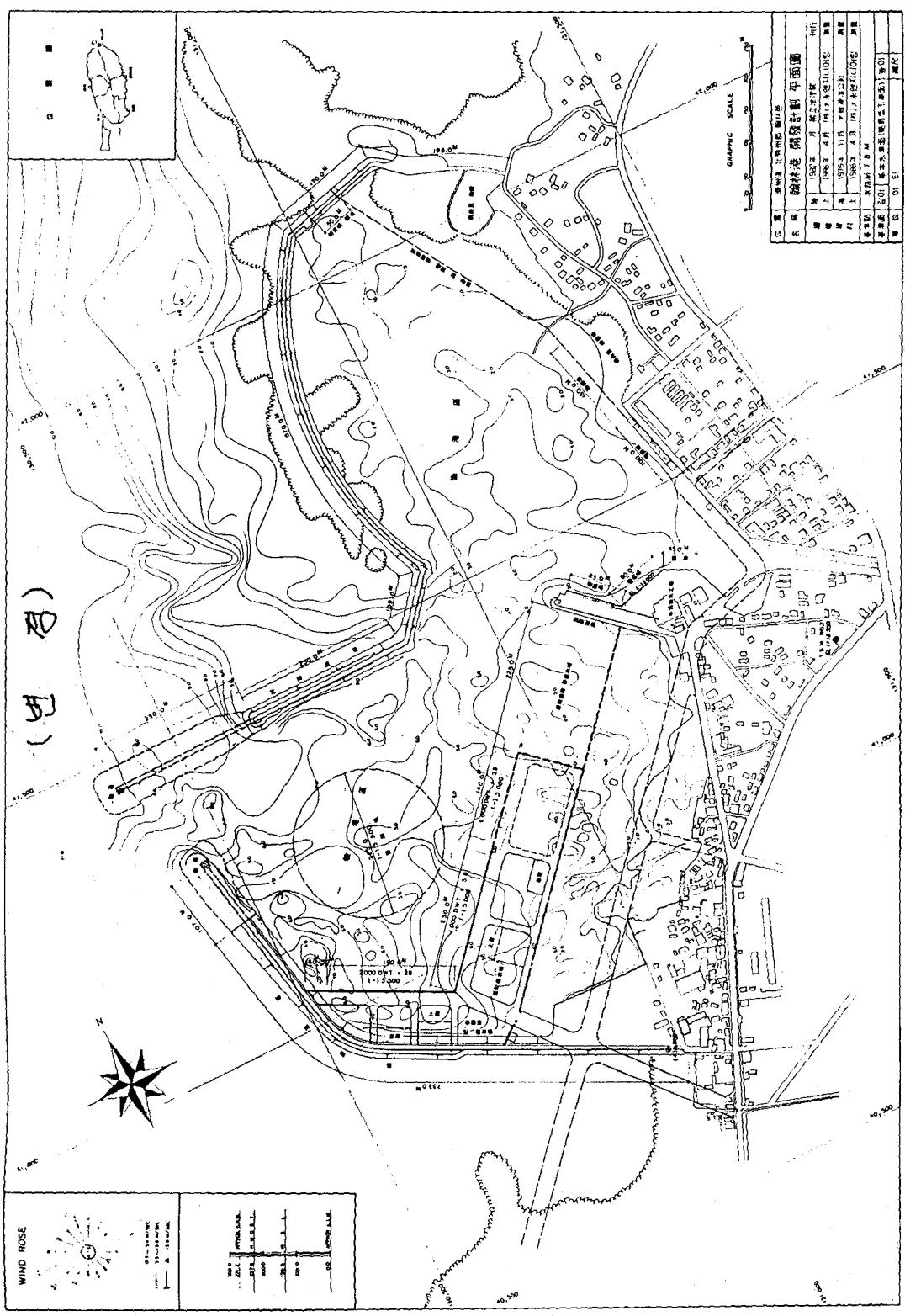
결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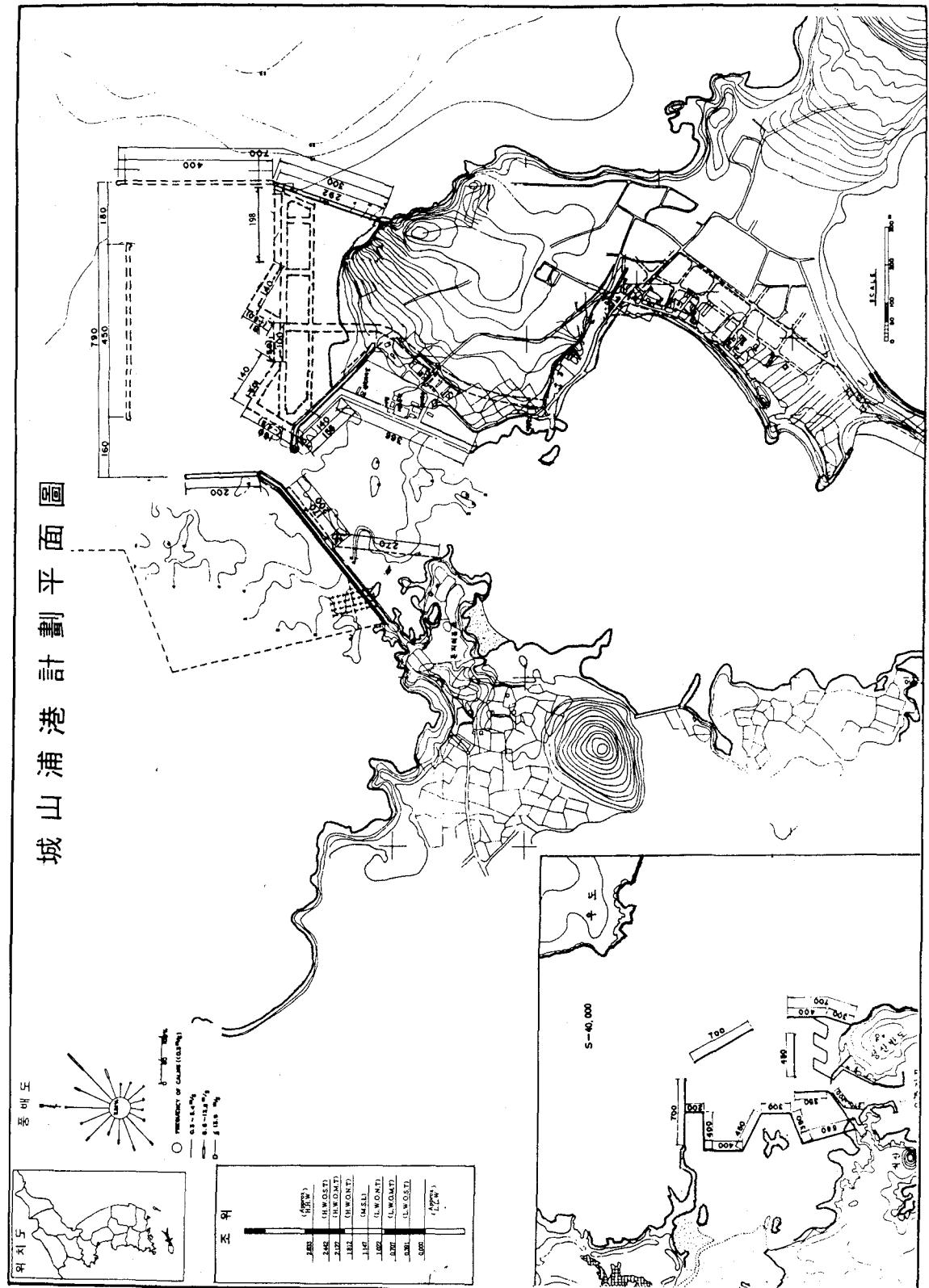
어항의 개발 및 확충은 어업전진기지로서의 역할과 어민소득의 증대를 도모하여 도서민과 어업에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의 가정 경제를 윤택하게 하고 태풍 등 해상상태가 나쁠 때 피난처를 제공해 줌으로써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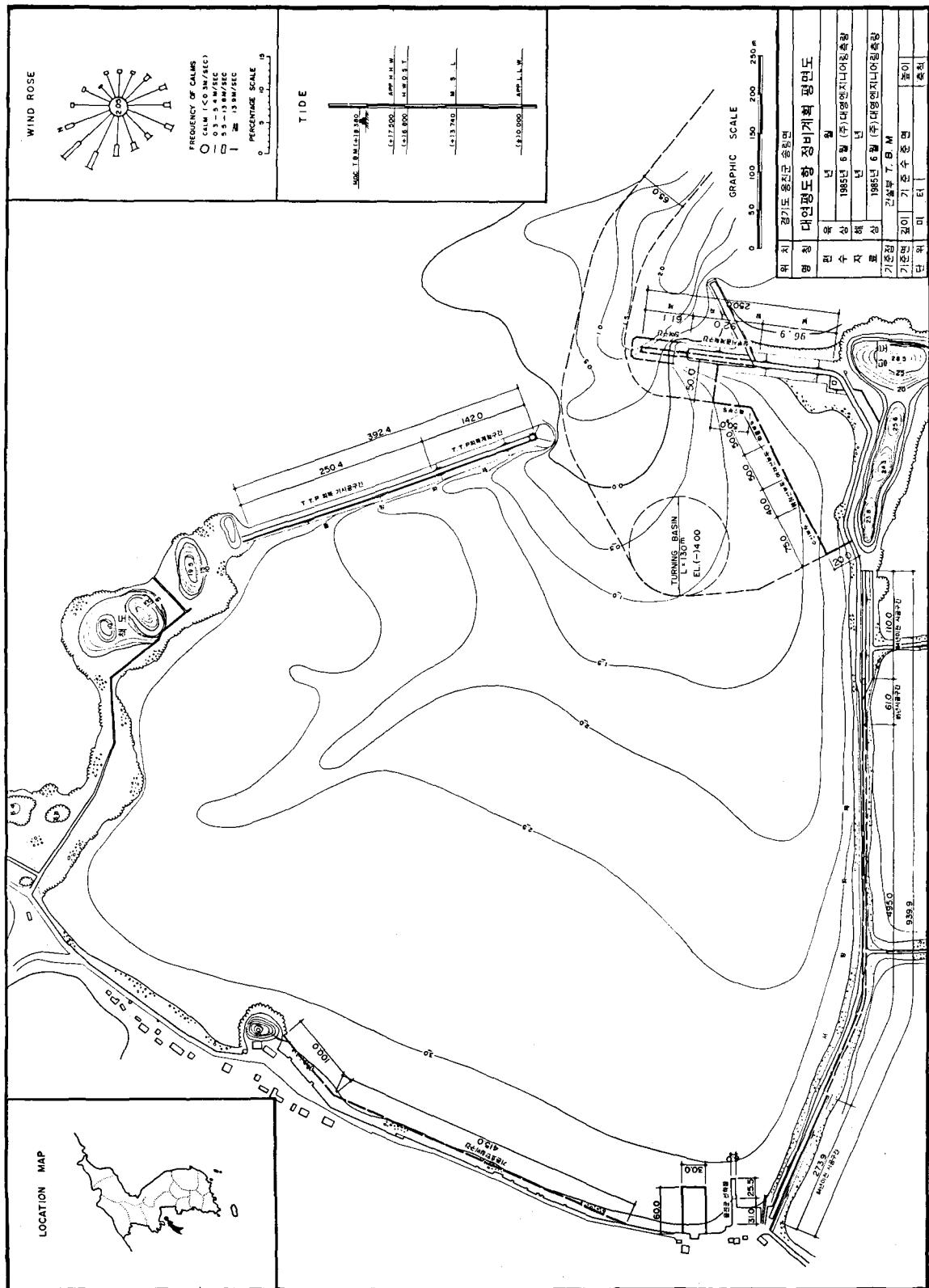
본고에서는 2종항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산재해 있는 중소규모 1963개의 어항 중, 해운항만청에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2종항의 일부인 9개항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나, 대부분의 어항들은 태풍시 또는 황천시 자연재해에 무방비 상태임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어항개발은 어업전진기지와 피난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설정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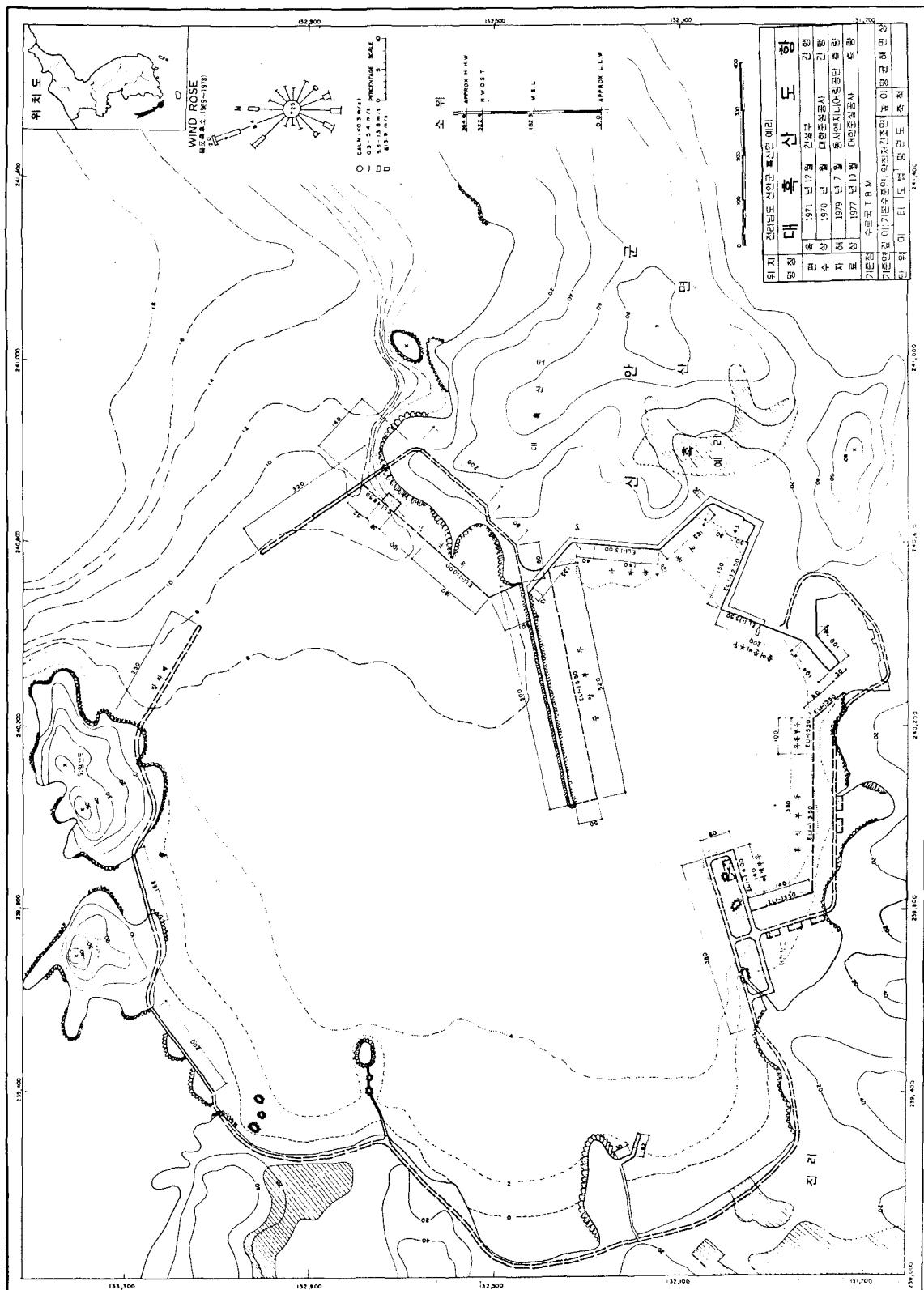


(風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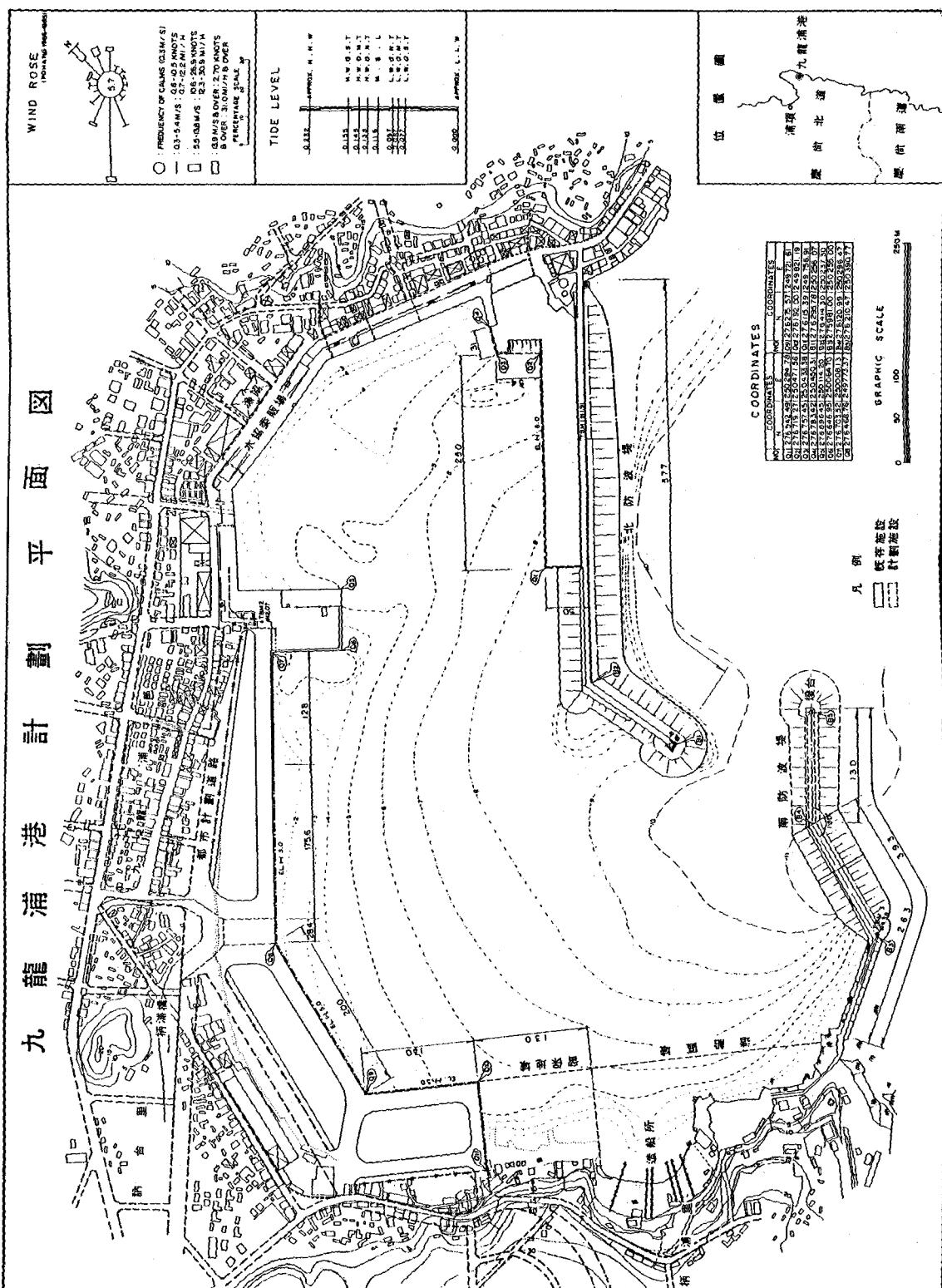








九龍港計畫平面圖



大川港開港發發計畫平面圖

바 금 장 대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1900.00

2000.00

2100.00

2200.00

2300.00

2400.00

2500.00

2600.00

2700.00

2800.00

2900.00

3000.00

3100.00

3200.00

3300.00

3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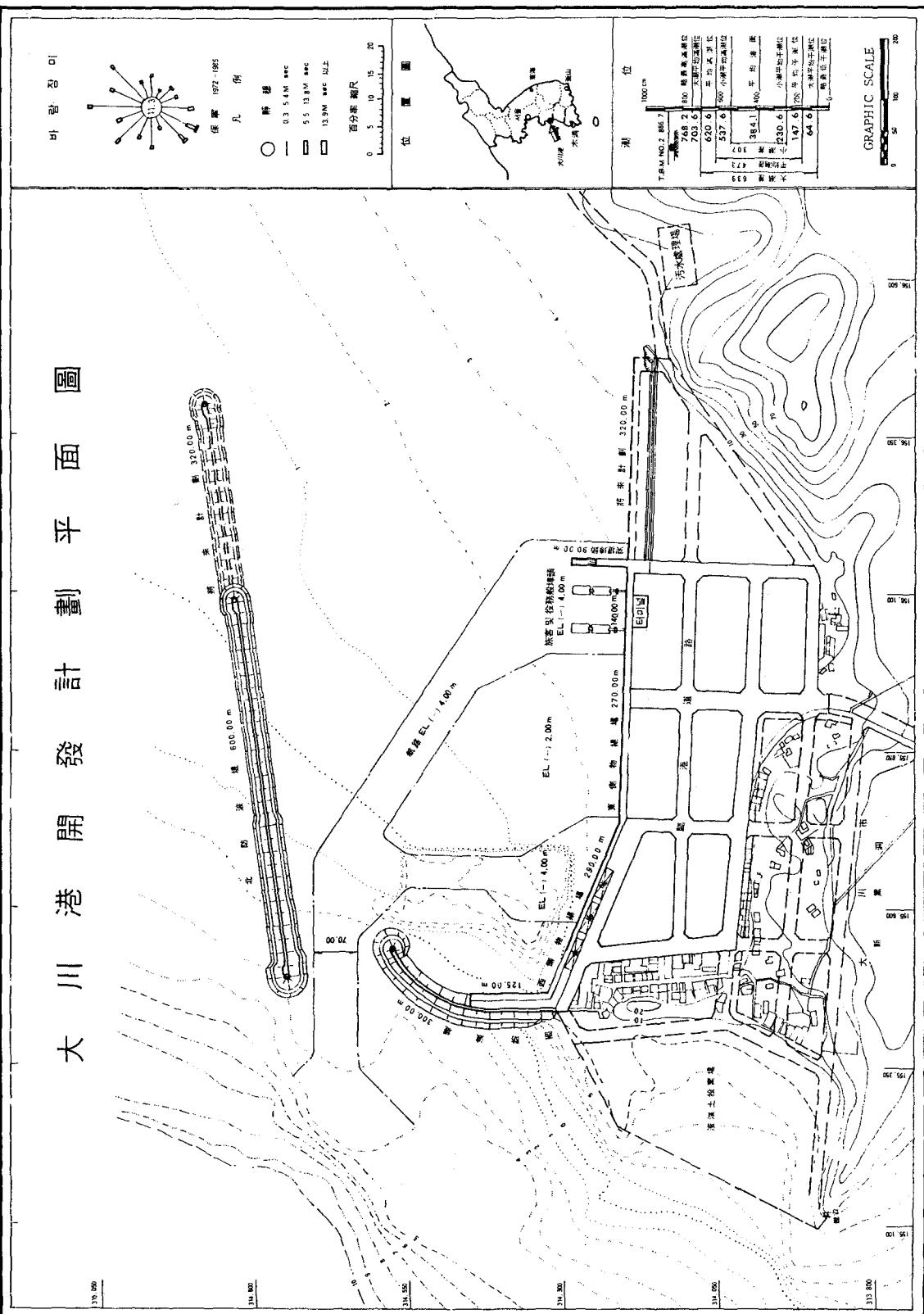
3500.00

3600.00

3700.00

3800.00

3900.00



巨文島港計劃平面圖

